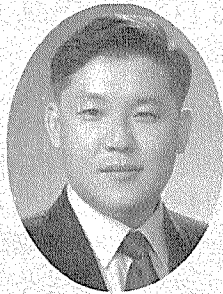


'99년 석유산업의 주요한 변화와 정책적 함의

- 국제유가 급등, 내수회복, 구조조정 -



윤 상 흠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사무관 >

산유국의 감산과 국제유가의 급등

99년도 석유산업의 대외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OPEC을 비롯한 주요 산유국의 감산과 이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연초 배럴당 10달러대에 머무르던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이 시작된 4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24달러대까지 상승하기도 하였고, 일부 성급한 기관과 언론들은 연말에는 30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한다.

이러한 유가급등의 가장 큰 요인은 산유국의 감산이며, 특히 과거와는 달리 감산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세계 석유소비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이 98년에 유례없는 금융위기로 침체국면을 맞이하자 석유 소비는 대폭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유가도 폭락하였으며 산유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것이 금년의 감산 합의와 높은 감산준수율의 주요 요인이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의 계속되는 경기호황과 석유소비 증가로 석유재고가 감소하였고,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회복에 따라 석유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투기자금까지 석유시장으로 몰리면서 유가급등현상을 부채질 하였다. 특히, 투기자금의 유입은 국제석유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유가상승은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물가상승과 함께 국내 산업의 생산비용 증대를 통한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회복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의 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바로 소비절약이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절약을 통해 소비물량을 줄인다면 유가상승의 효과를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절약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가가 지나치게 상승한다면 비축석유의 방출이나 석유제품 최고판 매가격제의 시행과 같은 특별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금년에는 국내유가가 국제유가 상승분 만큼은 오르지 않아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10월 산업자원부장관이 중동의 3개 산유국(사우디, 쿠웨이트, UAE)을 방문하여 원유의

안정적 공급과 국제석유시장의 안정문제 등을 협의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내년에도 대부분의 전문기관들이 배럴당 20달러 수준의 고유가상황을 예측하고 있어 이제 당분간은 작년과 같은 저유가시대가 다시 도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상승할 경우 이에 대한 최종적인 대책은 결국 소비절약 밖에 없으므로 고유가시대를 맞이한 정부의 에너지정책도 절약을 최우선과제로 삼게 될 것이다.

국내 석유수요의 회복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석유수요는 98년에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무려 15.6%라는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함께 석유소비도 증가하여 10월까지 전년동기대비 8.4%의 증가세를 보여 97년에 가까운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8년말부터 시작된 보일러등유의 신규공급으로 등유 소비가 대폭 증가(37.7%)하였으며, 제조업 가동율이 상승하면서 산업용 B-C유의 소비도 상당폭 증가(8.7%)하였다. 이러한 증가세에 따라 전년도 일평균 석유소비량은 184만배럴이었으나, 올해에는 200만배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산은 석유수요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적다. 이는 정유사들의 정제시설 가동은 수요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화할 수 없고, 거의 고정된 생산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정유사들이 정제시설 가동률을 줄일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고정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기보수로 인한 가동 축소(shutdown)를 제외하고는 거의 풀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금년에 생산이 증대된 것은 IMF 위기시 가동율을 30%대까지 감축했던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가 구조조정작업이 원활히 마무리되면서 가동율을 상향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생산의 증가와 함께 원유도입량도 증가하여 금년에는 97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제품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내수 증가로 인해 석유제품 수출은 물량 측면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 측면에서는 국제가격의 상승으

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석유수급현황 (99.1~10)〉

(단위: 천배럴)

수 요				공 급		
내수	병커링	수출	소계	생산	수입	소계
586,881	40,764	243,332	870,977	747,329	157,527	904,856
(8.4)	(7.1)	(△1.3)	(5.5)	(5.3)	(7.9)	(5.7)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다만, 여기서 지적할 점은 내수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제설비의 과잉현상은 아직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 정유사들의 공칭정제능력은 244만B/D이고, 상업가동능력은 270만B/D로서 각각 금년도 내수의 122%, 135%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지속적인 내수증가를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정제설비를 미리 투자하였으나, 97년말 발생한 IMF 외환위기로 내수가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사실 IMF 위기 없이 당초 전망대로 내수가 증가하였다면 현지점에서 지나친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기본적으로 내수 위주의 산업이라는 정유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내수를 충당할 정도는 생산해야겠지만 이를 초과하여 과다한 생산을 하고, 특히 잉여물량을 수출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견해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석유제품 수출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 소비에 충당하고 남는 물량을 처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국제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원가에 못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석유제품 수출물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고유황 B-C유는 국제가격이 원유가격보다 낮으며, 25% 이상을 차지하는 고유황 경우도 원유가격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큰 이득은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고유황유나 중질유가 많이 생산되는 것은 국내 정제설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므로 수출의 타당성을 논한다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논란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산업의 구조조정

IMF 위기는 우리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초래하였으며, 정유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막대한 부채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곤란하게 된 한화에너지는 결국 현대정유에 인수되어 이제 우리 정유사는 4사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금년말까지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해 현대정유는 외자유치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한 결과 UAE의 IPIC사와 약 5억달러의 외자유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유 4사 중 외국자본과의 합작회사는 3사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 중 2개사가 중동산유국과의 합작회사가 되었다.

한편 쌍용정유도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쌍용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쌍용그룹에서 분리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우리 정유산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외자유치 또는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장점으로는 산유국과의 합작투자는 세계적으로 석유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 걸프전 때 국내 정유사 중 사우디아와의 합작회사는 전시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단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특정국가에 대한 지나친 석유의존은 그 국가가 전체적으로 위기상황에 빠질 경우 원유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난 제1, 2차 석유파동 이후 우리 정부가 원유도입선 다변화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도입선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석유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맺음말

이제 곧 새로운 천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석유산업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실 과거의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어느 정도 정부의 통제와 보호 속에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폭적인 자율화와 전면적인 대외개방이 이루어진 지금, 정부의 보호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전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중요하다 생각되는 몇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분해·탈황시설의 투자확대를 통해 정제시설의 고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질화 추세에 있는 석유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물론, 국내소비가 곤란한 고유황제품의 과다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고도화 투자는 필요하다고 본다. 두번째는, 기술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전면적인 대외개방이 이루어진 지금 우리 석유시장도 이제 더 이상은 우리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는 복합에너지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즉, 시장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여러 종류의 에너지원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발전연료에 있어서 중유와 LNG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석유를 사용하는 소비자에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반대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석유산업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석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유통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유통질서가 문란해서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으므로 정유사, 판매소,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업계 전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